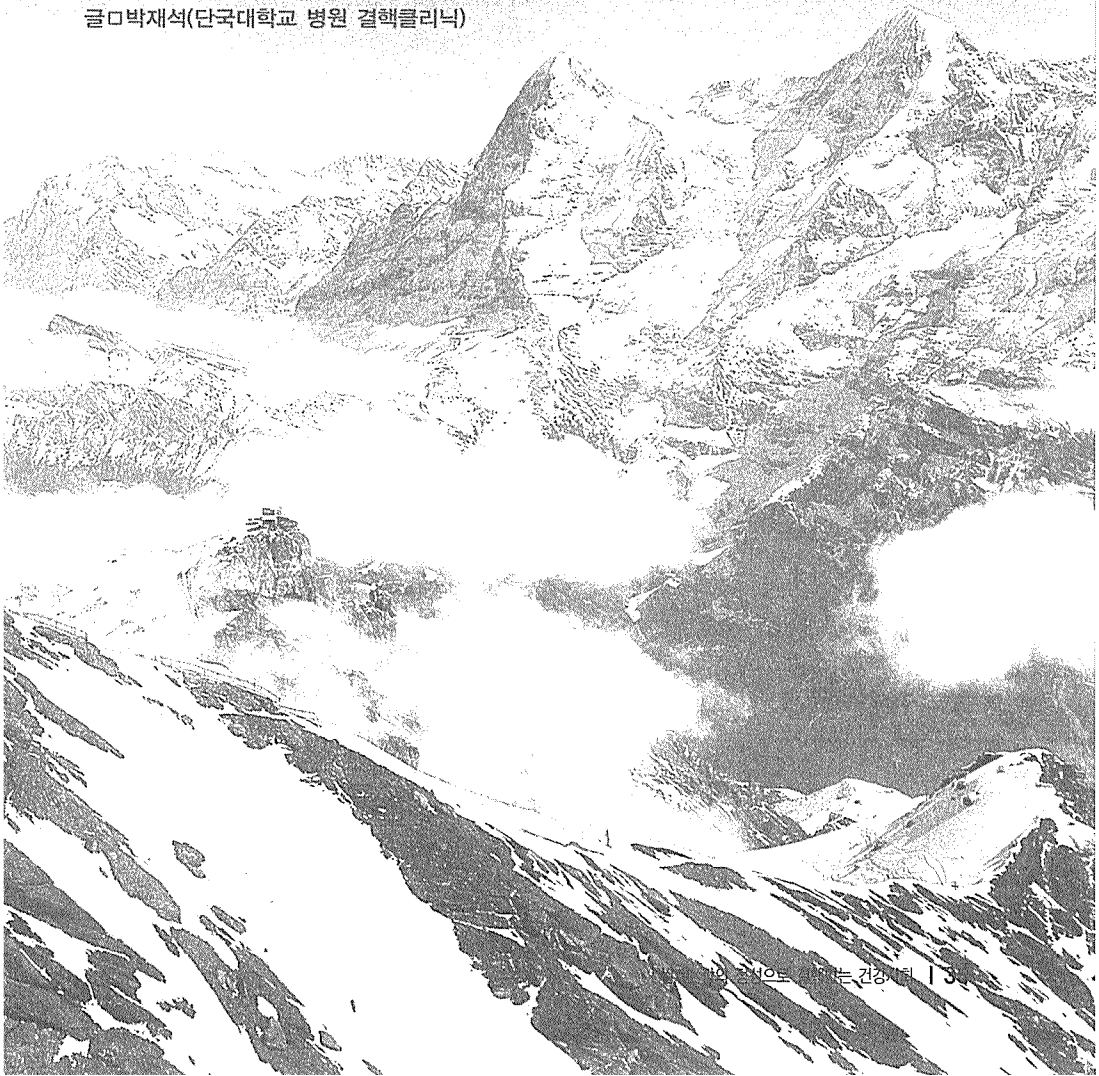


## 결핵환자의 좋은 가이드

의사는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환자가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다. 험준한 히말리아의 등도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셸파가 등반대를 잘 가이드 하여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역할은 결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결핵환자가 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글 박재석(단국대학교 병원 결핵클리닉)



히말라야 등반대는 등산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만으로는 정상 정복이 불가능하다. 그들에게는 '셀파'라는 히말라야 현지 풍토와 지리에 밝은 현지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좋은 셀파는 오랜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등반대가 가장 효과적인 등반 코스와 등반 일정을 짜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등반대와 동행하면서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눈보라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목숨을 걸고 헤쳐 나갈 방법을 강구해준다. 그런데 셀파가 히말라야의 풍토와 지리를 잘 알지 못하고 등반 도중에 위험에 처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등반대는 정상을 정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중에 등반을 포기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의사로서 첫발을 내디딜 당시에는 자신감에 넘쳐 환자의 모든 병을 다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고 환자들을 보면 볼수록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환자가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다. 험준한 히말라야의 풍토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셀파가 등반대를 잘 가이드 하여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역할은 결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결핵환자가 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완치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야 할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더군다나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결핵약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완치로 향하는 길은 더욱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만큼 이들 환자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완치의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모든 등반가는 좋은 셀파를 만나기를 기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결핵환자는 완치를 향한 험난한 길을 함께 동행할 좋은 가이드를 만나기를 바랄 것이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핵환자의 좋은 가이드가 지녀야 할 조건들을 생각해 본다.

## + 공부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

셀파는 히말라야의 번덕스러운 날씨, 험준한 지형뿐만 아니라 눈사태와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 등반대가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최상의 스케줄을 만들고 등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이나 돌발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셀파가 지형도 잘 모르고 돌발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미리 터득해 두지 않았다면 등반대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도 있고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면 우왕좌왕 하면서 등반대원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중에 등반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결핵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은 결핵이 무슨 병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약제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여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결핵환자를 진료할 때 각각의 형편에 따른 최적의 맞춤형 처방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완치'라는 큰 선물을 환자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결핵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환자의 고통은 물론 치료 실패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좋은 의사가 있고 나쁜 의사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가 나쁜 의사인가? 대답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불친절하고 설명을 잘 안 해주는 의사, 돈만 밝히는 의사가 나쁜 의사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는 가장 나쁜 의사는 무식한 의사이다.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의사가 제일 나쁜 의사라는 것이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환자의 복 중의 하나라고 한다. 결핵환자의 좋은 가이드가 되기 위해 2006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 + 신뢰받는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험준한 히말라야를 처음 등반하는 등반가는 셀파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등반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소한 것 하나까지 꼼꼼히 챙겨주고 등반 코스와 등반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난관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고 등반 도중 폭풍우와 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

고 등반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셀파를 등반가는 신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믿고 맡길 것이다. 등반 도중 등반가가 보기에는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셀파가 그 길은 위험하고 돌풍이 불어 닥칠 위험성이 크므로 둘러가야 한다고 말하면 셀파를 신뢰하는 등반가는 자기의 뜻을 굽히고 셀파의 말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셀파가 보수가 적다고 투정이나 부리고 위험성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갑자기 위험에 부닥쳤을 때 멀쩡이 떨어져서 무전으로만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면 등반가는 셀파를 잘못 구했다고 후회하면서 도중에 등반을 포기할 수도 있다. 또한 셀파를 신뢰하지 않는 등반가는 셀파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코스를 고집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셀파를 확보하는 것은 하말라야 등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 환자와 의사간의 '라뽀' 형성

결핵처럼 치료가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질환도 드물다. 정해진 처방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항결핵약제를 복용하면 결핵은 대부분 완치될 수 있다. 그러나 완치를 위해서는 수많은 약제들을 6개월 이상 오랫동안 꾸준히 결핵약을 먹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치료 초기에 기침이나 객담과 같은 증상이 없어지므로 환자는 결핵약 복용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 더욱이 복통이나 관절통과 같은 결핵약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결핵치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환자들의 경우 초기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민간요법 등으로 치료방침을 변경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 쉽다.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결핵치료의 핵심이며 이 때 의료진을 향한 환자의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친밀한 신뢰관계를 뜻하는 '라뽀(Rapport : 라뽀)'가 완치의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자의 신뢰란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환자는 의사를 인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비록 환자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 힘들더라도 의사의 지시를 기꺼이 따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등반가가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날씨가 좋으면 정해진 코스로 등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셀파 또한 등반가를 가이드하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등반가가 몸이 약

하거나 돌발적인 눈보라와 같은 장애물들이 나타나면 등반가뿐만 아니라 가이드하는 셀파도 힘들어진다.

결핵의 경우도 마찬가지. 환자가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결핵약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핵환자를 가이드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지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결핵약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는 환자를 설득하여 계속 약을 복용토록 하는 것은 고역이며 심지어 피하고 싶은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의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환자는 의사의 태도를 눈치로 알 수 있으며 라뽀가 깨어지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또 다른 의사를 찾아 방향하게 될 것이다.

프로 셀파는 셀파의 일 자체를 좋아하고 즐기며 일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일 것이다. 프로 셀파는 일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등반대를 정상으로 가이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히말라야 최고봉에 오른 등산가는 마스크를 타고 유명해지겠지만 등산가의 정상 정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셀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등산가와 생사를 함께 했던 셀파의 이름은 그 등산가의 기억 속에 그리고 셀파 자신의 추억 속에 큰 자량으로 남을 것이다.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아마추어 셀파에게서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이 결핵환자들을 진료하는 사람들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결핵환자들의 완치를 위하여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보상은커녕 누가 알아주거나 하느냐'고 포기하거나 대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그 어떤 일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스트랩토마이신 주사를 너무 맞아서 엉덩이가 돌처럼 굳어져 주사 맞을 데가 없다면서 쓸쓸하게 웃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면서, 부작용으로 약들을 수없이 바꾸면서 어렵게 치료를 끝낸 환자에게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약을 그만 먹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기쁨이란 환자와 의사 말고는 아무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짜증나고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환자를 바라보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는 좋은 가이드로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ㄸ